

Q2

산불은 매년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의 산림이 불에 타나요?

A 최근 10년 동안(2014년~2023년) 우리나라에서는 5,667건의 산불이 발생하며 산림 40,037ha와 주택·건축물 등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여의도 전체 면적 290ha의 약 138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약 567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2023년은 고온건조 현상으로 인해 596건의 산불로 인해 4,992ha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강풍이 유입되면서 3월 8일 경북 영덕 산불을 시작으로 4월 11일 강원 강릉 산불까지 8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4월 2일에만 대형산불 2건을 포함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총 35건(역대 2위)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고성·강릉·인제산불(2,871ha), 2020년 안동산불(1,944ha), 2021년 경북 안동(307ha), 예천(112ha), 2022년 울진·삼척산불(16,302ha) 등 최근 해마다 초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0년 간 연도별 산불발생건수(건) 및 피해면적(ha)〉

연도	산불발생건수(건)	피해면적(ha)
2014년	492	137
2015년	623	418
2016년	391	378
2017년	692	1,480
2018년	496	894
2019년	653	3,255
2020년	620	2,920
2021년	349	766
2022년	756	24,797
2023년	596	4,992

※ 출처 : 산림청 산불통계